

삼위일체 대축일

제 1 독서 : 잠언 8, 22-31

제 2 독서 : 로마 5, 1-5

복 음 : 요한 16, 12-15

순정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요한 16, 13).

강론

“참다운 우리의 모습”

김 교 동 신부 / 합일 천주교회

오늘은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면서도 한 분이신 하느님께 흠숭과 영광을 드리고, 그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결심하는 날입니다. 교회의 이천년이란 역사 안에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교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교리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교리가 인간의 언어로 쉽게 설명되지 못하고 하나의 신비적인 영역으로 생각되었지만 교회는 신앙으로 이를 깊이 받아들이고 하느님을 삼위일체의 하느님으로 항상 고백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성호경을 그을 때,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축복에서도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마치 천사의 메시지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에’라고 응답했던 성모님의 겸손과 신앙을 간직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 안에서 참다운 우리의 삶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이 서로 다른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을 지니셨으면서도 한 분이신 사실은 서로 구별되면서도 일치체를 이루는 완전한 공동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느님은 인간과 세상을 철저히 사랑하시기 위해 서로 일치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성화시키기 위하여 그 역할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신비 안에는 각자의 독특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하나라는 완전한 친교의 모습이 담겨 있고, 우리는 이 신비를 통해 인간을 위한 하느님의 풍부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게 창조되었으면서도 다른 이와 구별되는 고유성을 지닌 채로 창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축일을 지내면서 각자 얼마나 삼위일체적인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하느님이 주신 고유한 탈란트로 함께 친교를 나누고 일치하여 마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처럼 ‘다양성 안에 일치’를 이루어, 우리 안에 그 본래의 하느님의 모상을 회복하여 참다운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소리

“이런저런 사람 생각”

한 인간의 일생이나 한 나라의 역사가 살아갈 만한 것인가를 따져보는 일은 가치있는 것이다.

그런 작업을 반성이라고 한다. 반성이 없는 삶은 인간의 삶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반성하지 않는 사회다. 반성하려는 이가 지탄받기도 하고 반성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욕을 당한다.

유교적 권위주의의 유산 때문인 듯한 이런 풍조는 이성의 힘을 애써 무시하도록 몰아가는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막무가내로 공부만을 강요하는 교육에 쫓기다 못해 거의 일주일에 두셋씩이나 학생들이 목숨을 끊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누구도 모여 고민해보고 해결방법을 생각하려들지 않는다. 아픈 데를 소독하는 아픔은 참을 만하고 또 좋은 고통이다.

누구는 인류 역사를 반복이라고 했고 누구는 진보라고도 했는데 그리스도교적 입장은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가는 도정이라고 본다.

물질적 풍요로 반인간적 자연과피적 대가를 치르고, 정신적 발달로 인간집단에 잔인파 수단이 목적을 이기는 오류가 가득해지는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을 우리는 완성을 위한 단계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신없는 상황이다.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해진다고 하면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가 붙는 것은 이를테면 그리스도교적인 역사를 보는 눈일텐데...

근시안을 타하기 위해서 멀리 보는 눈을 지니려고 코앞에서 방법을 찾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우주 만물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 것인지 우리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오늘이다. 작은 우주라는 ‘사람’은 제 자신도 모르고. **☞**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⑧

“야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창세 2, 5-25)

창세기 2장 5절-25절의 창조에 관한 기사는 하느님을 야훼라고 불렀던 야훼스트(기원 전 9세기 솔로몬 궁정의 서기관)들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야훼스트의 문체는 단순하고 강하며, 이들은 하느님에 관한 사정을 인간의 언어와 행동양식에 비추어 표현하는 의인화(擬人化) 수법을 자주 사용한다. 이를테면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되어 숨을 쉬었다”(창세 2, 7)는 표현은 그 좋은 예이다.

창조설화에 대한 내용을 보더라도 사제계급들이 기록한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느님께서서는 다른 피조물들을 다 만드신 후 사람을 창조하시지만 여기서는 사람을 먼저 창조하신 후 동·식물을 창조하신다. 물론 두 기록 모두 다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느님은 본디 흙인 인간에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내세우셨다.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린 ‘아담’은 원래는 ‘사람’이라는 보통명사이고 히브리 말로 ‘땅’을 뜻하는 ‘아다마(Adamah)’에서 나왔다. 따라서 창조설화에서 하느님이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또한 하느님께서서는 아담에게 모든 들짐승과 날짐승, 집짐승을 데려다주시니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성서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행위는 이름을 받는 존재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 존재에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담은 모든 짐승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짐승 하나하나를 마음먹은 대로 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들 짝을 만들어주리라”(창세 2, 18)고 하시며, 하느님께서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갈빗대를 하나 뽑아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신다. 이는 인간은 홀로 설 수 없고 반드시 관계를 맺을 상대를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담의 깊은 잠은 하느님의 창조가 신비스러운 것이어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느님

인간이 알아차릴 수 없음을 뜻하고, 인간은 오직 하느님께서 이루신 창조의 결과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에서 만들어졌다는 표현은 갈비뼈가 심장과 오장육부를 보호하듯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인생의 반려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본시 한몸이어서 서로를 언제나 찾게 마련이고 나아가 둘 사이의 사랑은 자기 부모와의 연대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몸이 되게 되었다”(창세 2, 24)는 말씀은 남녀의 관계, 가정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다. 창세기의 저자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인간을 위하시는 하느님의 원초적인 계획 안에서 조명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2장의 가르침을 정리해보면 인간은 땅을 가는 충실한 관리자여야 하고, 땅을 지배하며 모든 동물들을 다스려야 한다. 또한 인간은 지상적인 존재이지만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하느님의 소중한 존재이다.

치질 전문 치료
서울 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젬마·조 오픈
여성 하이팻션
인후동 성락프라자 1층 139호
최 바 울 라
☎ 76-1964

조주온 치과 의원
이전 확장 개원합니다.
(6월 15일부터)
원장 조 주 온(헬레나)
중앙 성당 맞은편(희기적내과 건물)
☎ 87-8291

한 라 스포츠
등산, 낚시, 스포츠용품
자갈 텐트 셋트 엄가 판매
(현금, 신용카드 분할 판매)
송 헤 리(살로메)
관동로 전주 전신전화국 앞
☎ 84-2941

잠 간

“김희태 신부를 보내고 나서”

선교란 ‘파견’이라는 의미로써 인간을 해방시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며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주교구가 페루를 선교지로 택한 이유는 남미에서 가장 어려운 곳이 페루이고, 페루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곳이 차차뽀야스교구였기 때문입니다.

페루교회 현재 상황을 보면 전인구의 95%가 가톨릭 신자이기에 가톨릭 국가라 합니다. 그러나 남미는 전반적으로 성직자가 파부족입니다. 내가 있던 라마교구만 보더라도 약 450명 정도의 사제가 있는데 그중에 85%가 수도회 보조 선교사와 교구 피테이 도눔 외국 선교사들입니다. 또 메리놀회 손 신부님이 선교하는 TACNA(딱나)교구에는 12명의 사제가 있는데 2분은 환자이고, 4분은 70세가 넘는 노인 사제이기에 실제 일할 수 있는 신부는 6명밖에 안됩니다. 지난번 환송미사에 참석하신 페루 홀리교구 라이문도 주교님의 교구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21개 본당에 100여명의 선교사제들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의 부족과 사제 성소의 감소로 지금은 겨우 5개 본당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얼마 전인 5월 26일에 페루 선교사로 떠나신 김희태 신부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린아이와 같이 뜻하신 바를 향해서 걸어가신 신부님의 앞길에 희망의 등불이 비출 것입니다. 125명이 되는 전주교구 사제 중에서 오로지 신부님만 선택하신 선교사의 길. 정말 장하십니다! 선교사 생활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강한 뜻을 꼭 이루고 돌아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영육간의 건강이 필요하오니, 페루의 음식이 입에 맞지 않더라도 맛있게 먹고 꼭 건강히 돌아와 승리의 월계관을 받으시도록 빌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페루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신부님들과 수녀님들을 위해서도 전주교구 모든 형제자매들과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김윤섭 신부

요심이 (984) 김병오



교 구 소 식

※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6월 21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1. 교구장 본당 사목방문: 6월16일(화) 오전10시-용안 성당, 오후2시-금마 성당, 6월19일(금) 오전10시-신평 성당, 오후2시-원평 성당.
2. 축! 견진: 6월20일(토) 오후3시 복자 성당, 21일 오전10시 월명동 성당.
3. 박병준 신부 재판: 문규현 신부 방북 관련 항소심, 6월18일(목) 오후4시 서울고등법원 418호 법정,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4. 중·고 캠프 이론 강습: 6월20일(토) 오후1시 가톨릭 센터.
5. 중·고 캠프 실기 강습: 6월26일-28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6. 제9차 선택 주말: 7월17일-19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문의-교육국(85-0041).
7. 교도소 사목후원회 월례미사: 6월15일(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8.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교육: 6월16일(화) 오전10시30분 교구청 별관 4층, 대상-미혼자, 임신·피임을 원하는 분, 행복한 가정운동(85-5098).
9. M.E. 소개모임: 6월20일(토) 오후3시 교구청 별관 3층.

※ 엄마들을 위한 영화 상영: 6월15일(월) 오후3시 교구청 별관 1층 소강당, 제목-엘레니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버리기 전에 생각하라

이것을 다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재생이 될까? 내놓는 쓰레기 양을 얼마로 줄일 수 있을까? 신중한 고려가 자원의 낭비를 막습니다. 버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용머리 바지회 당첨번호

- 1등: 038261, 019038
- 2등: 049313, 028722, 051250, 021023, 023093
- 3등: ××642×
- 4등: ×××864
- 5등: ××××39 · 6월30일까지 상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양재·한복·흙패션
노라노 학원
수시모집..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리언드래이)
동부시점양·민정당시료
☎ 86-2715
* 냉난방 완비

성심목 공업사
성구·장의자·회의용 탁상
사무용 가구·침대·실내 장식
목제가구 일철
서옥봉(스테파노) 한은순(안나)
전주 럭키 우아아파트 앞
☎ 77-1747

고급 적벽돌 생산업체
(화원벽돌, 변색벽돌, 미다시)
제1공장: 성심연와 (0658)546-4174
제2공장: 대건요업 (0658)546-7080
본 사: (0653)51-0488
대표 차 계 철(베드로)

사무용 가구
(주) 삼 신 전로특약점
금고, 목·철제책상, 의자, 쇼파,
컴퓨터 책상
중앙시장 뒤 노벨당 옆
☎ 253-3361~2
정 광 호(안셀모)

헬스복, 수영복, 무용복
프리드
김 안 순(마라나)
코아백화점 옆 육교 건너
중앙신협 옆
☎ 254-0322

효소의 명품
보사허 제 99호, 품목허 제 99-1
팔보종합아채효소
건강을 가꾸어드립니다
전북지사 ☎ (0652)74-1161
금암동 로타리 KBS 중간
손석중(안셀모), 김제철(안젤라)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용머리성당 신축기금 바자회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 견진교리: 16~19일 23~26일 오전9시30분, 오후8시
3. 중·고생 견진교리: 토요일 오후6시
4. 첫 영성체: 21일 성체와 성혈대축일 공식미사
5. 모임: ①푸리아-14일 오후2시 ②장우회-공식미사 후 ③여성 연합회-16일 어머니미사 후 ④제수형제회-20일 오후2시 ⑤M.E세랑 2팀-20일,정병희(바오로)댁,M.E세랑 1팀-22일,박일천(요한)댁.
6. 금주청소: 중노25,26만 차주청소: 중노27,인후1만
□ 지난주 봉헌금: 921,040원 □ 교무금: 959,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삼 인

1. 견진교리: 15~19일 오후7:30(19일은 대부대모와 함께 오십시오)
2. 견진: 20일(토) 오후3시
3. 회합①요셉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부녀회·단합회(18일 나바위)
③푸리아(오늘 오후2시)
④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⑤해설자모임(21일 공식미사 후)
⑥성우회(21일 공식미사 후)
금주전례: 해설-조옥래 독서-강익구씨 부부
봉헌-신계근씨 가족
차주전례: 해설-유복규 독서-황선주씨 부부
봉헌-조백환씨 가족
□ 지난주 봉헌금: 587,330원 □ 교무금: 993,1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육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이끌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다.
1. 수녀원 신축을 위한 기도문: 잘 바치고 계시는지요?
2. 장년회: 20일(토) 저녁미사 후
3.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심서일기: 판관기 1장~21장
5. 금주청소: 순교자의 모후Pr
6. 금주전례: 해설-이미숙 독서①이옥동 ②김순이
봉헌: 김광열,황상호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여정진 독서①김봉길 ②오귀남
봉헌-안정만,박순귀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76,000원 □ 교무금: 394,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용

※ 오늘은 삼위일체대축일! (6월은 예수성심성월)
※ 축-견진성사: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1. 회의: ①프란치스코3회-오늘오후2시 ②성모회-다음주일공식미사후
2. 모임: ①전례부-다음주 목요일 오후8시
3. 알림: ①봉성체-다음주(6월24일)수요일 ②교무금-교무금미납자는 정성껏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③성당의 모든 불건은 우리모두의것입니다.내것처럼아껴사용합시다 ④중고학생체육대회에 수고해주신 성실회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665,500원 □ 교무금: 462,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본당 공동체 일치를 위한 나눔의 장에 협조해 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381,100원 □ 교무금: 170,000원

*** 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
1. 금주: ①자모회(전10시) ②일치의모후Cu(후2시) ③조당자 합동면담(후2시) 사목회(후8시)
2.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9월기도: 13일~21일까지 많은참석
3. 성모회: 17일(수) 오전11시 4. 구역반장회의: 18일(목)전10시
5. 초·중·고생 체육대회 및 제반행사에 협조해주신 돈·보스교회,성가정회,성모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 사순절 돼지 저금통 아직 가지고 있는 가정은 봉헌 바랍니다.
7. 지주: 본당신부님 영명축하식(공식미사)
②바리의 성모Cu(후2시)
③조당자 합동 혼인식(후2시)
□ 지난주 봉헌금: 1,718,550원 □ 교무금: 370,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1. 축! 견진: 54명의 제소자 견진자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2. 첫 영성체: 21일 전10시30분,61명 어린이에게 축하드립니다.
3. 첫 영성체 어린이 세례: 20일 후5시,축하식 21일 12시
4. 어린이 첫 고백성사: 19일 후5시,아침,저녁기도 암송
5. 중·고 교사 교재연수 1차교육: 20일 센터에서 후1시
6. 교도소 사목 후원회 월례미사: 15일 전10시30분,센터3층
7. 예비자 일교식: 22일 후7시30분,인도자와함께 30분전 도착
8. 임진각 통일염원 미사: 24일 화비-10,000원 21일까지 접수
9. 회의: 성모회-17일 어머니미사 후,청년회-21일 후8시
10.교무금 봉헌주일: 21일,신자의 의무를 다하여 봉헌바람
11.가정미사: 16일 전11시30분,11구역1만 이수영(요셉)
□ 지난주 봉헌금: 861,800원 □ 교무금: 607,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각

1. 성모회,청년회 정기총회: 오늘 미사 후
2. 첫영성체 교리: 15일(월)~26일(금) 오후6시 대상-3학년이상
3. 반모임: 16일(화)오전-화산2(B) 오후-평화, 저녁-삼정2.17일(수)오전-금하, 오후-화산2(A) 비사별
4. 자모회: 다음 주일미사 후
5. 현열: 21일(일) 주일미사 후
6. 금주전례: 이완자 독서·봉헌: 송덕순,송훈식
차주전례: 정 결 독서·봉헌: 이순애,이근기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사목회장이 등 섭

※ 오늘은 삼위일체 대축일
1. 성모회: 17일(수) 10시30분
2. 자모회: 17일(수) 11시
3. 봉성체: 16(화) 10시(환자 접수하세요)
4. 끈뎀두알 김효근(아고회)첫미사: 11시미사(10시미사 없음)
5. 용머리 본당을 위한 2차원금 있습니다.
6. 금주: ①중가자들의모후 ②그리스도의 모후
지주: ①칼맹의모후 ②피인들의 피난처
□ 지난주 봉헌금: 1,076,900원 □ 교무금: 827,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익 도

1. 성진건립위원 피정중 특별기도 바랍니다.
2. 가정방문: 18(목)오후2시 삼호3만,19일(금)오후2시 삼호4만
3. 첫 영성체: 20(토) 오후4시
4. 6월 전교의 모임(반모임): 부부동반하여 특별히 뜻있는 나눔부탁
차주모임: 새벽회
신축헌금 봉헌액: 2,050,000원
금주전례: 해설-이한은 독서①김용신 ②이정윤
미사봉헌안내-김현균 부부,김상섭 부부
차주전례: 해설-강진상 독서①정상수 ②라희성
미사봉헌안내-김자옥 부부,권일만 부부
□ 지난주 봉헌금: 1,130,820원 □ 교무금: 1,083,000원